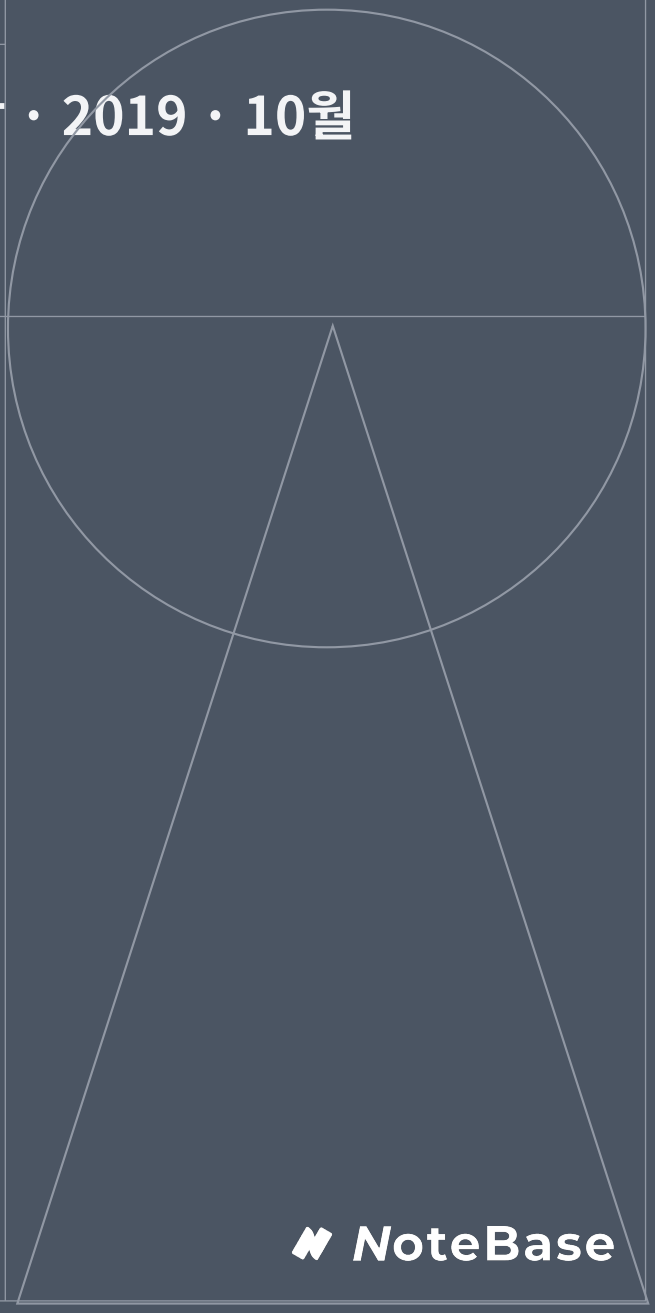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9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9 · 10월

문 1. 지적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 -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형식과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 등록 - 등록내용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가기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③ 경계설정과 측량 - 토지등록을 위해 일필지의 경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명확한 토지 구획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④ 토지 -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부속도서와 영해가 모두 포함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의 구성요소인 지적공부, 등록, 경계설정과 측량, 토지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법정 형식과 규격에 따라 적어 두는 공적 장부이다.
등록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지적공부에 공적으로 기재하는 행위이다.
경계설정과 측량은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고 그 위치와 면적을 측정하여 등록의 기초를 만드는 절차이다.
토지는 지적의 대상이 되는 육지와 도서를 뜻하며, 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지적공부는 법으로 정한 형식과 규격에 따라 작성·비치되는 공부이므로 설명이 옳다.

② O
등록은 등록내용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적 행위이므로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맞다.

③ O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하려면 각 필지의 경계가 먼저 분명해야 하므로 경계설정과 측량은 토지등록의 기초가 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영해가 모두 포함된다"는 표현이다.
지적에서 말하는 토지는 우리나라의 육지와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바다인 영해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④는 '국토'라는 큰 개념과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일부러 섞어 놓은 함정이다. 부속도서는 포함되지만 영해까지 포함된다고 넓혀 버리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적의 구성요소 문제는 각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본다. 특히 토지는 지적등록의 대상인 육지인가, 공시장부인가, 등록행위인가를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적공부는 장부, 등록은 기재행위, 경계설정·측량은 등록의 기초, 토지는 육지와 도서이며 영해는 제외이다.

NoteBase

문 2. 토지등록 편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적편성주의는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고 1토지 1등기 용지를 따른다.

② 인적편성주의는 개개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동일 소유자의 모든 토지는 당해 소유자의 대장에 기록한다.

③ 연대적편성주의는 토지소유자 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④ 물적·인적편성주의는 인적편성주의를 기본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되 물적편성주의 요소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등록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하는지에 따라 물적편성주의, 인적편성주의, 연대적편성주의, 물적·인적편성주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적편성주의는 개개의 토지 또는 필지를 기준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이며 키워드는 1토지 1용지이다.
인적편성주의는 개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이며 키워드는 동일 소유자별 일괄 기록이다.
연대적편성주의는 등록 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등록부에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물적·인적편성주의는 물적편성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인적편성주의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혼합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적편성주의는 토지 자체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이므로 1토지 1등기용지라는 설명이 맞다.
② O. 인적편성주의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하므로 동일 소유자의 토지를 그 소유자 명의의 대장에 모아 기록하는 설명이 맞다.
③ O. 연대적편성주의는 신청 또는 등록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순차 기재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인적편성주의를 기본으로"이다. 물적·인적편성주의는 인적편성주의가 아니라 물적편성주의를 기본으로 등록부를 편성하고, 여기에 인적편성주의 요소를 가미한 방식이다.

오답 포인트

혼합형이라는 말만 보고 인적 요소가 들어가면 인적편성주의가 기본이라고 바꾸어 외우기 쉽다. 이 문항은 ④에서 기본 축을 뒤집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등록부 편성의 기준축을 먼저 본다. 기준이 토지이면 물적편성주의, 소유자이면 인적편성주의, 시간 순서이면 연대적편성주의이다. 혼합형은 무엇을 기본으로 삼는지까지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토지 기준은 물적, 소유자 기준은 인적, 시간 기준은 연대, 혼합형은 물적 기본에 인적 가미이다.

NoteBase

문 3. <보기>는 지번 설정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보기>
지번을 붙이는 방법 중에서 (㉠)은 도로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한쪽은 홀수인 (㉡)로 하고 반대쪽은 짝수인 (㉢)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가지 등에 이용할 때에는 토지의 소재를 추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를 (㉣)이라고도 한다.

① ㉠: 분모식, ㉡: 분자, ㉢: 분모, ㉣: 지역식

② ㉠: 기우식, ㉡: 기수, ㉢: 우수, ㉣: 교호식

③ ㉠: 지역식, ㉡: 분모, ㉢: 분자, ㉣: 분모식

④ ㉠: 교호식, ㉡: 우수, ㉢: 기수, ㉣: 기우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번 설정방법 중 기우식의 의미와 기수·우수, 그리고 교호식이라는 별칭의 대응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우식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쪽에는 홀수 지번, 반대쪽에는 짝수 지번을 붙이는 방식이다.
기수는 홀수를 뜻하고, 우수는 짝수를 뜻한다.
교호식은 기우식의 다른 이름이다.
분모식과 지역식은 도로 양측에 홀짝을 나누어 붙이는 방식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분모식이 틀렸다. 제시문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 반대쪽은 짝수로 붙이는 방식이므로 기우식이어야 한다. 또한 ㄹ의 지역식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기우식, ㄹ 교호식이다.
② O: ㄱ 기우식, ㄴ 기수, ㄷ 우수, ㄹ 교호식의 대응이 모두 맞다. 홀수는 기수, 짝수는 우수이므로 제시문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ㄱ의 지역식이 틀렸고, ㄴ·ㄷ의 분모·분자도 틀렸다. 제시문은 지역 구분이나 분수식 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도로 양측의 홀짝 배치를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ㄱ 기우식, ㄴ 기수, ㄷ 우수, ㄹ 교호식이다.
④ X: ㄴ과 ㄷ이 뒤바뀐 점이 틀렸다. 홀수는 기수이고 짝수는 우수이므로 우수-기수의 배열은 제시문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ㄴ 기수, ㄷ 우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우식과 교호식이 같은 뜻이라는 점은 비교적 쉽게 잡히지만, 홀수와 짝수를 각각 기수·우수에 연결하지 못하면 ④처럼 헷갈리기 쉽다. 또 분모식, 지역식처럼 실제 지번 설정 관련 용어가 함께 제시되어 개념만 어설프게 알면 오답으로 끌려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을 나누고 한쪽은 홀수, 다른 쪽은 짝수라고 나오면 먼저 기우식부터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홀수는 기수, 짝수는 우수로 바로 연결하면 선택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우식=도로 양측 홀짝 분리, 기수=홀수, 우수=짝수, 교호식=기우식이다.

NoteBase

문 4. 지적불부합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백형 - 지적기준점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에서 등록전환 등 이동측량을 수행하거나 국지적 측량성과를 결정함에 따라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② 불규칙형 - 지구단위로 경계위치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도곽 내의 필지경계선이 집단적으로 밀리는 현상

③ 중복형 - 인접 일필지의 경계가 이웃하고 있는 필지에 겹치거나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

④ 위치오류형 - 등록된 경계위치와 현실경계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로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불부합의 유형을 경계의 이동 패턴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공백형은 인접해야 할 경계 사이에 틈이 생겨 등록되지 않은 공간이 남는 유형이다.
편위형은 일정 지역의 필지들이 같은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밀린 유형이다.
불규칙형은 경계가 일정한 방향성 없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산발적으로 어긋난 유형이다.
중복형은 인접 경계가 서로 겹쳐 같은 부분이 중복 등록된 유형이다.
위치오류형은 개별 필지가 현지와 전혀 다른 위치에 등록된 유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공백형은 등록전환이나 이동측량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점 계열이나 국지적 측량성과가 맞물리지 않아 필지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유형이다. 선지의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은 공백형의 설명으로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불규칙형'이라는 유형명이다. 지구 단위로 경계 위치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고 도곽 내 필지경계선이 집단적으로 밀리는 현상은 불규칙형이 아니라 편위형이다. 불규칙형은 한쪽으로 통일되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어긋난다.
3번: O. 중복형은 인접한 필지의 경계가 서로 겹치거나 중복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선지의 설명은 중복형의 핵심인 '겹침'을 정확히 잡고 있다.
4번: O. 위치오류형은 등록된 경계 위치와 현실 경계 위치가 달라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경우이다. 선지의 설명은 위치오류형의 개념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불규칙형과 편위형을 이름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한쪽으로 집단적으로 밀리면 편위형이고, 일정한 방향 없이 산발적으로 어긋나면 불규칙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계의 모습이 빈틈인지, 겹침인지, 한 방향 집단 이동인지, 방향성 없는 산발적 어긋남인지, 아예 다른 위치 등록인지를 본다. 빈틈이면 공백형, 겹침이면 중복형, 한쪽 밀림이면 편위형, 제각각 어긋나면 불규칙형, 다른 곳에 놓였으면 위치오류형이다.

암기 포인트

공백형은 빈틈, 중복형은 겹침, 편위형은 한쪽 밀림, 불규칙형은 제각각, 위치오류형은 다른 곳이다.

NoteBase

문 5. 토지의 경계설정에 대한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안쪽 어깨부분

② 토지 간의 고저차가 있으면 해당 지필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상황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구조물의 중앙 · 하단부, 경사면의 상단부, 수면의 최대수위, 공유수면매립지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형 · 지물이나 구조물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이다. 어깨부분은 제방 등 비탈면과 평탄부가 만나는 가장자리 부분을 뜻한다.

핵심 구분

연접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기준이다. 도로 · 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가 기준이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 기준이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안쪽 어깨부분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틀린 표현은 "안쪽 어깨부분"이고, 올바른 표현은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2번 O: 토지 간의 고저차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이 아니라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낮은 쪽 경계 판단과 연결되는 기준이므로 옳다.
3번 O: 도로 ·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절토면에서는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가 기준이므로 옳다.
4번 O: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해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수위가 기준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1번의 "안쪽"과 "바깥쪽" 방향이다. 다른 선지들은 하단부, 상단부, 최대만수위처럼 자주 묻는 기준어를 그대로 제시하고,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기준만 안쪽 어깨부분으로 바꾸어 놓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계 기준 문제는 상황어를 먼저 잡고 기준 위치를 대응시킨다. 고저차는 하단부, 절토는 경사면 상단부, 해면 · 수면은 최대만조위 · 최대만수위,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저차는 하단, 절토는 상단, 수면은 최대수위, 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NoteBase

문 6. 지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초기에는 수전, 한전으로 구분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전, 답, 대의 3종으로 구분하였다.

② 1975년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양어장의 6개 지목을 신설하였다.

③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 전, 답, 대, 지소, 임야, 철도선로, 수도선로 등 18개 지목으로 구분하였다.

④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등의 지목이 서로 중복되는 때에는 용도가 중요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부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목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지목 설정 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다. 이 문항은 시기별 지목의 증감과 명칭 변화, 그리고 지목이 겹칠 때 적용하는 용도 판단 원칙을 함께 묻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조선 초기에는 수전과 한전의 구분이 중심이었고, 이후에는 전·답·대로 세분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조선시대 지목 변천의 큰 방향을 바르게 잡은 선지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1975년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양어장의 6개 지목을 신설하였다"는 표현이다. 1975년 전문개정의 핵심은 공장용지와 학교용지의 신설 및 유사지목의 통폐합·명칭정비이고, 주차장·양어장 등을 포함한 6개 지목을 1975년에 한꺼번에 신설한 것은 아니다.
3번 O: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토지 종류를 18개 지목으로 구분하였다. 선지에 제시된 전·답·대·지소·임야·철도선로·수도선로 등은 그 당시 지목 체계에 포함되는 예시이다.
4번 O: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 등과 같이 공공적 용도의 지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용도경중을 따져 더 중요한 사용목적에 맞추어 지목을 정한다. 지목 설정의 원칙을 묻는 선지로서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여러 시기의 지목 신설 사항을 한 시점인 1975년으로 몰아넣은 것이 함정이다. 지목 문제는 지목의 개수만 외우기보다 어느 시기에 무엇이 신설되었는지를 함께 기억해야 틀리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목 관련 선지는 먼저 시기를 잡고, 다음으로 그 시기의 지목 수와 대표 신설 지목을 확인한다. 원칙형 선지는 주된 사용목적, 중복 시 용도경중 같은 기준어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목 문제는 시기별 변천과 설정 원칙을 분리해서 본다. 1975년은 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양어장 등은 그 이후 세분화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7. 영국에서 조세징수와 국가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세대장인 돔즈데이북(Domesday Book)을 작성한 인물은?

① 엘리자베스(Elizabeth) 1세
② 찰스(Charles) 1세
③ 조지(George) 1세
④ 윌리엄(William) 1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국의 둠즈데이북과 이를 편찬하게 한 국왕을 연결하는 역사 사실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엘리자베스 1세: 튜더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로 16세기 인물이다.
찰스 1세: 스튜어트 왕조 군주로 청교도혁명과 관련되는 17세기 인물이다.
조지 1세: 하노버 왕조의 첫 국왕으로 18세기 인물이다.
윌리엄 1세: 노르만 정복 이후 토지와 조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둠즈데이북을 편찬하게 한 11세기 국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튜더 왕조의 군주이므로 11세기 둠즈데이북과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엘리자베스 1세'이고, 올바르게는 '윌리엄 1세'이다.
② X: 찰스 1세는 17세기 스튜어트 왕조의 군주이므로 조세 정비를 위한 둠즈데이북 작성 시기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찰스 1세'이고, 올바르게는 '윌리엄 1세'이다.
③ X: 조지 1세는 18세기 하노버 왕조의 군주이므로 둠즈데이북과 무관하다. 틀린 표현은 '조지 1세'이고, 올바르게는 '윌리엄 1세'이다.
④ O: 윌리엄 1세는 노르만 정복 후 전국적인 토지 조사와 과세 자료 정비를 위해 둠즈데이북을 편찬하게 한 인물로 맞다.

오답 포인트

선지의 세 오답은 모두 실제 영국 국왕이라서 이름만 보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둠즈데이북은 11세기 노르만 정복 직후의 토지대장이라는 시기 단서만 잡으면 윌리엄 1세로 바로 좁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국 토지조사, 조세정비, 둠즈데이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노르만 정복 직후의 윌리엄 1세를 먼저 연결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둠즈데이북 = 윌리엄 1세의 전국 토지조사 대장이다.

NoteBase

문 8. 토지의 사정(査定)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소유자와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사정결과는 30일간 공시하고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정선은 토지조사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지역선을 말한다.

④ 토지대장등록지는 도지사가 그 소유자를 확정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 강계선(사정선), 토지대장등록토지의 사정권자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정은 토지조사령상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강계선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 사이의 사정된 경계선으로, 사정선과 같은 뜻이다.
토지대장등록토지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사정하였고, 임야대장등록토지는 도지사가 사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확정하는 처분이므로 옳다. 이 문항의 핵심은 사정을 단순 조사행위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점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90일 이내"이다. 토지조사령상 사정결과는 30일간 공시하고, 불복자는 그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제기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지역선"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은 지역선이 아니라 강계선이며, 이를 사정선이라고도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도지사"이다. 토지대장등록토지는 도지사가 아니라 임시토지조사국장이 그 소유자를 확정하였고, 도지사는 임야대장등록토지의 사정권자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공시기간 30일은 맞게 두고 재결 신청기간만 90일로 바꾸어 혼동을 유도한다. ③은 강계선과 지역선을 바꾸어 넣은 함정이고, ④는 토지대장등록토지와 임야대장등록토지의 사정권자를 뒤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정 관련 문항은 먼저 무엇을 확정하는지, 다음으로 불복기간이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사정권자가 누구인지의 세 축으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경계선 명칭이 나오면 사정선은 곧 강계선이라는 점을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정은 소유자·강계 확정, 사정선은 강계선, 토지는 임시토지조사국장·임야는 도지사이다.

NoteBase

문 9. 농지의 폭이 넓고 좁음에 따라 세액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주로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은?

① 경무법(頃畝法)
② 망척제(綱尺制)
③ 결부법(結負法)
④ 두락제(斗落制)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무법, 결부법, 두락제, 망척제의 성격을 구별하여 중국 유래의 면적 파악 방식과 우리 고유의 과세·관행 단위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무법(頃畝法)은 중국에서 유래한 면적법으로, 토지의 넓이를 경·묘 같은 면적 단위로 파악하여 전국 토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 초점이 있다.
결부법은 일정한 세금 부담 능력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토지를 파악하는 우리 고유의 방식이다.
두락제는 한 말의 종자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행적 면적 표시이다.
망척제는 그물눈처럼 구획된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려는 측량상의 개선안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경무법(頃畝法)은 경묘법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 유래한 토지 면적 단위법이다. 결부법처럼 수확량이나 세 부담 능력을 중심에 두기보다 토지의 넓이를 기준으로 전국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답이다.
2번 X: 망척제는 그물눈이나 격자 방식으로 면적을 계산하려는 측량 개선안이다. 틀린 부분은 중국 유래의 전통적 과세 파악 방법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정확한 면적 산출을 위한 측량 방법의 하나이다.
3번 X: 결부법은 결·부 단위로 세금 부담 능력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토지를 파악하는 우리 고유의 방식이다. 틀린 부분은 중국에서 유래하여 전국 토지의 정확한 면적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과세와 수확량 기준의 토지 파악 방식이다.
4번 X: 두락제는 한 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 즉 마지기를 기준으로 한 관행적 면적 표시이다. 틀린 부분은 국가적 양전 목적의 정확한 토지 조사법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파종량 기준의 관행적 면적 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발문에 세액이라는 표현이 있어 결부법으로 기울기 쉽지만, 결정어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부분이다. 세 부담 능력 중심이면 결부법이고, 면적 단위 중심이면 경무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유래, 경묘, 면적 단위, 정확한 양전이 나오면 경무법으로 판단한다. 수확량·세 부담 능력이 나오면 결부법, 씨앗의 파종량이 나오면 두락제, 그물눈·격자 계산이 나오면 망척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무법은 중국식 면적 파악, 결부법은 우리식 과세 기준, 두락제는 마지기, 망척제는 그물눈 측량이다.

NoteBase

문 10. 구장산술(九章算術)에 따른 전(田)의 형태별 측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규전(圭田)은 사다리꼴 토지로, 동활(東闊)과 서활(西闊) 및 장(長)을 측량하였다.

② 제전(梯田)은 이등변 삼각형의 토지로, 장(長)과 평(平)을 측량하였다.

③ 방전(方田)은 정사각형의 토지로, 장(長)과 광(廣)을 측량하였다.

④ 직전(直田)은 직삼각형의 토지로, 구(句)와 고(股)를 측량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장산술에서 전의 형태별 도형과 그에 대응하는 측정 항목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전은 정사각형의 토지로 장과 광을 재는 형식이다 / 결정 차이축: 정방형 토지인가 / 키워드: 정사각형, 장, 광
직전은 직사각형의 토지로 장과 평을 재는 형식이다 / 결정 차이축: 장방형 토지인가 / 키워드: 직사각형, 장, 평
규전은 이등변삼각형의 토지로 장과 광을 재는 형식이다 / 결정 차이축: 삼각형 토지인가 / 키워드: 규전, 삼각형, 장, 광
제전은 사다리꼴의 토지로 장과 동활·서활을 재는 형식이다 / 결정 차이축: 윗변과 아랫변이 다른 사다리꼴인가 / 키워드: 제전, 사다리꼴, 동활, 서활
구고전은 직각삼각형의 토지로 구와 고를 재는 형식이다 / 결정 차이축: 직각삼각형인가 / 키워드: 구, 고, 직각삼각형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규전은 사다리꼴 토지'와 '동활과 서활 및 장을 측량'이라는 표현이다. 규전은 사다리꼴이 아니라 이등변삼각형의 토지이다. 동활·서활은 제전에서 쓰는 측정 항목이다. 올바르게는 '규전은 이등변삼각형의 토지로, 장과 광을 측량하였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제전은 이등변 삼각형의 토지'와 '장과 평을 측량'이라는 표현이다. 제전은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토지이다. 또한 장과 평은 직전에 대응하는 측정 항목이다. 올바르게는 '제전은 사다리꼴의 토지로, 장과 동활 및 서활을 측량하였다'이다.

③ O
방전은 정사각형의 토지로 보는 것이 맞다. 구장산술의 전형 분류에서 방전은 기본적인 정방형 토지이며, 이에 대응하는 측정 항목은 장과 광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③은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직전은 직삼각형의 토지'와 '구와 고를 측량'이라는 표현이다. 구와 고는 직각삼각형인 구고전에 대응하는 항목이다. 직전은 직사각형의 토지로 정리하며 장과 평을 측량한다. 올바르게는 '직전은 직사각형의 토지로, 장과 평을 측량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규전과 제전을 서로 바꾸고, 직전과 구고전의 측정 항목을 섞는 방식이 대표적 함정이다. 특히 ①은 제전의 설명을 규전에 붙였고, ④는 구고전의 설명을 직전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도형 이름만 대충 보면 쉽게 속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도형의 모양을 확정한 뒤 측정 항목을 붙이면 된다. 정사각형이면 방전, 직사각형이면 직전, 이등변삼각형이면 규전, 사다리꼴이면 제전, 직각삼각형이면 구고전으로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규는 삼각, 제는 사다리, 직은 장평, 구고는 직각삼각형의 구·고이다.

NoteBase

문 11.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천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시정전시과 → 녹과전

② 경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시정전시과 → 녹과전

③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녹과전

④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녹과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시기별 변천 순서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시정전시과 - 고려 전기의 최초 전시과 제도이다.
2. 개정전시과 - 시정전시과를 손질하여 지급 기준을 다시 정비한 제도이다.
3. 경정전시과 - 문종 때 전시과 체계를 재정비한 단계이다.
4. 녹과전 - 고려 말 전시과 체제가 약화된 뒤의 말기 제도이다.

왜 이 순서: 시정전시과가 출발점이고, 그 뒤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로 정비가 이어진 다음 고려 말에 녹과전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시정전시과 다음에 개정전시과가 오는 점은 맞지만,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틀린 표현은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시정전시과"의 배열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녹과전"이다.

2번 X: 경정전시과를 맨 앞에 둔 점이 틀리다. 경정전시과는 시정전시과와 개정전시과보다 뒤의 제도이다. 올바르게는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녹과전"이다.

3번 X: 시정전시과 다음 단계에 경정전시과를 둔 점이 틀리다. 시정전시과 다음에는 개정전시과가 오고, 그 다음이 경정전시과이다. 올바르게는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녹과전"이다.

4번 O: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녹과전의 배열이 고려 토지제도의 변천 순서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의 이름이 비슷하여 둘의 선후를 바꾸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중간 두 제도의 위치를 섞어 놓거나 경정전시과를 시정전시과보다 앞세우는 배열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토지제도 순서 문제는 최초 전시과인 시정전시과를 먼저 잡고, 그 뒤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의 정비 순서를 붙인 다음, 고려 말의 녹과전을 마지막에 두면 판단이 된다.

암기 포인트

시개경녹으로 외우면 된다.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녹과전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2. 조선시대 양전개정을 주장한 인물과 그의 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약용 - 『경세유표』
② 이기 - 『해학유서』
③ 유길준 - 『반계수록』
④ 서유구 - 『의상경계책』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양전 개정이나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인물과 그 대표 저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저서 매칭형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약용: 『경세유표』에서 국가 제도 전반과 함께 전제 개혁 방향을 체계적으로 논한 실학자이다.
이기: 『해학유서』에 수록된 전제망언 등에서 토지제도 개혁과 양전 문제를 논한 인물이다.
유형원: 『반계수록』에서 토지제도 개혁론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대표 실학자이다.
서유구: 『의상경계책』에서 전제, 양전법, 농정을 함께 논한 실학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약용과 『경세유표』의 연결은 맞다. 『경세유표』는 경세론과 제도개혁론을 담은 저술로, 토지제도와 전제 개혁 논의도 포함한다.

② O
이기와 『해학유서』의 연결은 맞다. 『해학유서』에는 전제망언 등이 수록되어 있어 토지제도 개혁과 양전 문제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유길준 - 『반계수록』"이라는 연결이다. 『반계수록』의 저자는 유길준이 아니라 유형원이다. 올바르게는 "유형원 - 『반계수록』"이다.

④ O
서유구와 『의상경계책』의 연결은 맞다. 이 저술은 전제의 개편, 양전법, 농정 문제를 함께 다루는 개혁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이름이 비슷한 유길준과 유형원을 바꿔 놓은 함정이다. 특히 『반계수록』은 책 제목보다 반계라는 호와 유형원을 함께 묶어 기억하지 않으면 근대 계몽사상가 유길준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저서 연결 문제는 주장 내용을 전부 외우기보다 저서명에서 대표 인물을 먼저 떠올리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반계수록』은 유형원, 『경세유표』는 정약용, 『해학유서』는 이기, 『의상경계책』은 서유구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반계수록은 반계 유형원, 유길준은 『서유견문』 계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NoteBase

문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도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서울시 주요 건물의 건물배치 및 위치가 표시된 가치 있는 지번도로, 1936년 8월 15일 지성당(至誠堂)에서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으며, 축척은 1/6,000이다.

① 대경성정도
② 관저원도
③ 율림기지원도
④ 궁채전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기 지도의 명칭을 제작 시기, 제작처, 축척, 수록 내용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경성정도는 1936년 지성당에서 발행한 서울의 지번도로, 주요 건물의 배치와 위치를 나타내는 경성 시가지 지도이다. 관저원도는 대한제국기에 고위 관료의 관저를 실측한 원도이다. 율림기지원도는 밤나무 숲을 대상으로 한 측량 원도이다. 궁채전도는 궁 소속 채소밭을 실측한 도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기의 핵심 단서는 서울의 주요 건물 배치와 위치가 표시된 지번도, 1936년 8월 15일 지성당 제작, 축척 1/6,000이다. 이 조합에 해당하는 지도명이 대경성정도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관저원도"이다. 관저원도는 서울 시가지 전체의 지번도가 아니라 고위 관료의 관저를 실측한 원도이므로 보기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율림기지원도"이다. 율림기지원도는 밤나무 숲을 측량한 원도이므로 서울 주요 건물의 배치와 위치를 나타낸 1936년 경성 지번도로 볼 수 없다.
④ X: 틀린 부분은 "궁채전도"이다. 궁채전도는 궁 소속 채소밭을 실측한 도면이므로 서울 시가지의 주요 건물 배치와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오답 포인트

오답은 이름만 보고 모두 비슷한 옛 지도라고 묶어 버릴 때 나온다. 이 문항은 지도의 대상이 서울 시가지 전체인지, 관저인지, 밤나무 숲인지, 궁 소속 채소밭인지의 차이를 구분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항에 제작 연도, 제작처, 축척, 수록 대상이 함께 나오면 먼저 지도의 대상부터 분류하면 된다. 1936년 지성당, 서울 주요 건물 배치, 1/6,000 지번도라는 조합이면 대경성정도이고, 관저·율림·궁채처럼 특정 대상만 실측한 도면은 바로 제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대경성정도는 1936년 경성 시가지 지번도이고, 관저원도는 관저, 율림기지원도는 밤나무 숲, 궁채전도는 궁 소속 채소밭을 가리킨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토지등록을 위해서 제출된 서류들에 관련된 주체 및 객체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① 신청의 원칙
② 특정화의 원리
③ 공개의 원리
④ 등록의 원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등록에서 제출서류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식별하는 특정화의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청의 원칙은 토지등록이 당사자나 권한 있는 자의 신청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이다.
특정화의 원리는 등록대상 토지와 관련 당사자를 혼동 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공개의 원리는 등록사항을 공적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원리이다.
등록의 원리는 토지에 관한 사실이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문은 신청이 있어야 등록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출서류에 적힌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틀린 표현은 선지명 자체이고, 올바르게는 특정화의 원리이다.
② O: 토지등록 서류에서 관련된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식별한다는 설명은 특정화의 원리에 해당한다.
③ X: 공개의 원리는 등록사항을 일반인이 열람·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제시문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동일인과 대상토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기준을 말하므로, 올바르게는 특정화의 원리이다.
④ X: 등록의 원리는 토지의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를 등록부에 기재하여 공적으로 표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제시문은 기재행위 자체보다 등록대상과 당사자의 식별 명확성을 말하므로, 올바르게는 특정화의 원리이다.

오답 포인트

공개의 원리와 등록의 원리는 모두 공시와 장부기재를 떠올리게 하므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공개나 기재가 아니라 주체 및 객체를 성명·주민등록번호로 명확히 확인한다는 식별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 판단에서 먼저 문장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본다. 신청이 핵심이면 신청의 원칙, 열람과 공시가 핵심이면 공개의 원리, 장부에 올려 공시하는 행위가 핵심이면 등록의 원리, 사람과 토지를 혼동 없이 식별하는 내용이면 특정화의 원리이다.

암기 포인트

특정화의 원리는 누구와 어느 토지인지를 분명히 하는 원리이다.

NoteBase

문 15. 우리나라의 지적도면 전산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업은?

① 토지기록전산화사업

② 제1차 NGIS 사업

③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④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정보화 사업들 가운데 지적도면 자체의 전산화를 직접 추진한 사업과, 기록 전산화나 행정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지기록전산화사업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지적기록의 전산입력이 중심인 사업이다.
제1차 NGIS 사업은 국가 GIS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형도·지적도 등 기본 공간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한 사업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전산화된 지적도와 각종 토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토지관리 행정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장정보와 도면정보를 연계하여 민원과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는 사업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토지기록전산화사업의 중심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같은 기록부의 전산화이다. 틀린 부분은 이 사업을 지적도면 전산화와 가장 직접 연결하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속성정보 중심의 지적기록 전산화 사업이다.
2번 O. 제1차 NGIS 사업은 국가 GIS 기반 조성 단계에서 지형도와 지적도 같은 기본 공간정보 전산화를 핵심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적도면 전산화와 가장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2번이다.
3번 X.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전산화된 지적도, 지형도, 용도지역 정보 등을 통합하여 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응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지적도면 전산화 자체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전산화된 도면을 활용하는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4번 X.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장정보와 도면정보를 연계하여 토지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틀린 부분은 이 사업을 지적도면 전산화의 출발 단계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포함한 토지정보 통합 활용 단계의 사업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 이름에 모두 토지정보와 지적 관련 용어가 들어 있어 전부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을 전산화하거나 구축하는지가 다르다. 기록을 전산화하는지, 도면을 전산화하는지, 전산화된 자료를 행정 시스템으로 활용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1번, 3번, 4번에 흔들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업명을 보면 먼저 대상이 기록인지 도면인지 시스템인지부터 구분한다. 기록부 전산화이면 토지기록전산화사업이고, 기본 공간정보인 지적도면 전산화이면 제1차 NGIS 사업이며, 전산화된 자료의 통합 활용이면 LMIS나 KLIS 계열 사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록은 토지기록전산화, 도면은 제1차 NGIS, 활용체계는 LMIS·KLIS이다.

NoteBase

문 16. 1960년 제정된 「지적측량사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적측량사의 한 종류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① 대행측량사
② 지정측량사
③ 한지측량사
④ 상치측량사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1960년 제정 「지적측량사규정」상 지적측량사의 유형과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가공무원으로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상치측량사 =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행측량사 =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하는 자이다.

핵심 구분

「지적측량사규정」은 지적측량사를 상치측량사와 대행측량사로 나눈다. 상치측량사는 관서에 상근하면서 지적측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대행측량사는 위탁받은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공무원 신분과 소속 관서 사무 종사 여부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대행측량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자이다.
- 틀린 표현: 대행측량사
- 올바른 표현: 대행측량사는 위탁받은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② X
- 지정측량사는 이 규정에서 정의한 지적측량사의 종류가 아니다. 규정상 유형은 상치측량사와 대행측량사이다.
- 틀린 표현: 지정측량사
- 올바른 표현: 국가공무원으로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치측량사이다.

③ X
- 한지측량사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적 분류명이 아니다. 규정의 공식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한지측량사
- 올바른 표현: 규정상 지적측량사의 한 종류는 상치측량사이다.

④ O
- 상치측량사는 「지적측량사규정」상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공무원 소속의 상근 측량사와 위탁업무 수행자인 대행측량사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정측량사, 한지측량사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비공식 용어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역사적 규정에서 인물이나 직종의 명칭을 묻는 문제는 먼저 공식 분류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이어서 정의 문장의 핵심 주체를 본다. '국가공무원', '소속 관서', '지적측량사무 종사'가 나오면 상치측량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치는 관서 상근 공무원, 대행은 위탁업무 수행자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초기 지적관련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수연명부는 결수를 납세의무자별로 조사하고 통일된 양식의 징세대장으로 작성하였다.

② 간주임야도에 등록된 대장은 일반적인 대장과 별도로 산토지대장이라 불렀다.

③ 과세지견취도는 견취 작성의 방법으로 그린 약도 또는 간이지적도를 말한다.

④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된 것으로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하여 합계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초기 지적관련장부의 명칭과 서로 대응하는 도부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결수연명부는 지세 부과를 위해 만든 징세대장이고, 과세지견취도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약도이다.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권 사정의 원부이고,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일반 토지대장과 별도로 산토지대장에 등록하였다.
간주임야도와 산토지대장을 직접 대응시키면 개념이 뒤바뀐다.

선지별 해설

1번: O. 결수연명부는 결수를 조사하여 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만든 통일 양식의 징세대장이다. 초기 토지조사 과정에서 과세와 소유 확인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2번: X. 틀린 부분은 "간주임야도에 등록된 대장"이다. 산토지대장은 간주임야도에 대응하는 대장이 아니라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일반 토지대장과 별도로 적기 위해 만든 별책 토지대장이다.
3번: O.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약도 성격의 도면이다. 결수연명부만으로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는 자료이다.
4번: O.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되었고, 책 말미에서 지목별 집계 후 다시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하여 합계하였다.

오답 포인트

간주임야도, 간주지적도, 산토지대장은 이름이 비슷해 대응 관계를 서로 바꾸기 쉽다. 이 문항은 "산토지대장"이라는 익숙한 용어를 제시한 뒤 앞의 대응 대상을 간주임야도로 바꾸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기 지적장부 문제는 먼저 장부의 기능을 나눈다. 징세대장인지, 소유권 사정원부인지, 그 내용을 그린 도면인지부터 구분한 다음, 간주지적도-산토지대장처럼 서로 짝이 되는 명칭을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결수연명부-징세, 과세지견취도-약도, 토지조사부-사정원부, 산토지대장-간주지적도 대응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적도는 세부측량원도를 (㉠) 또는 (㉡)으로 등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지번 설정 지역 내 지적도면의 매수가 많아 그 접합관계의 색인이 편리하도록 (㉢)를 작성하였다.

① ㉠: 등고법, ㉡: 간접자사법, ㉢: 색인도

② ㉠: 등고법, ㉡: 직접자사법, ㉢: 색인도

③ ㉠: 점사법, ㉡: 직접자사법, ㉢: 일람도

④ ㉠: 점사법, ㉡: 간접자사법, ㉢: 일람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의 등사 방식과 여러 도면의 접합관계를 확인하는 보조도면의 명칭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점사법은 세부측량원도의 내용을 점으로 옮겨 지적도를 작성하는 초기 등사 방식이다.
직접자사법은 세부측량원도를 직접 등사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일람도는 동일한 지번설정지역 안에서 여러 장의 지적도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눈에 보여 주는 도면이다.
등고법은 지형의 높낮이를 등고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지적도의 등사 방식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X: ㉠의 "등고법"이 틀렸다. 문제는 세부측량원도를 무엇으로 등사했는지를 묻는데, 등고법은 지형 표현 방법일 뿐 지적도 작성용 등사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점사법"이다.
2번 X: ㉠의 "등고법"이 틀렸다. ㉡의 직접자사법과 ㉢의 색인도 여부를 보기 전에 첫 항목부터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점사법"이다.
3번 O: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는 세부측량원도를 점사법 또는 직접자사법으로 등사하여 작성하였고, 여러 매의 접합관계를 쉽게 찾기 위해 일람도를 작성하였다.
4번 X: ㉡의 "간접자사법"이 틀렸다. 이 문장에서 요구하는 역사적 작성 방식은 점사법 또는 직접자사법의 조합이다. 올바르게는 "직접자사법"이다.

오답 포인트

등사법을 묻는 자리에 발음이 비슷한 "등고법"을 넣거나, 접합관계의 안내도면을 일반적인 "색인도"로 바꾸면 틀린다. 이 문항은 지적도 작성 방식과 보조도면의 정확한 역사 용어를 함께 묶어 기억했는지를 노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세부측량원도를 무엇으로 등사하였는가"가 나오면 먼저 등사법인지부터 확인한다. 지형표현 용어인 등고법은 바로 배제하고, 여러 장의 도면 접합관계를 보여 주는 보조도면은 일람도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토지조사사업 지적도는 "점사법·직접자사법·일람도"의 조합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9. 조선시대 양안을 작성할 때 각 면별로 작성된 기초 장부를 중심으로 자호와 지번을 부여하고, 면적·결부·시주·시작·사표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장부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서책

② 야초책

③ 중초책

④ 전답타량책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양안 작성의 3단계인 야초-중초-정서의 기능 차이, 특히 자호·지번 부여와 기재사항 대조를 담당하는 중초책의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야초책은 현지 측량·조사 내용을 처음 적어 둔 기초 초안 장부이다.
중초책은 야초책을 바탕으로 면 순서에 따라 자호와 지번을 붙이고 면적·결부·시주·시작·사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중간 정리 장부이다.
정서책은 중초책을 수합하여 형식을 통일해 정리한 최종본이다.
전답타량책은 전답의 타량 내용을 기록한 장부 또는 양안의 다른 명칭으로 보아야 하며, 본문처럼 자호·지번을 부여하며 대조·정리한 단계 장부와는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서책은 최종 정리본이므로 본문처럼 자호와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서 여러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기초장부를 중심으로 자호와 지번을 부여하고 … 확인하여 작성"에 정서책을 대응시킨 점이다.
올바르게는 정서책은 중초책을 수합해 형식을 통일한 최종본이다.

② X
야초책은 1단계 초안 장부이므로 현지 측량·조사 내용을 적는 단계이다. 본문처럼 면별 기초장부를 바탕으로 자호·지번을 붙이고 항목 일치를 점검하는 정리 단계는 아니다.
틀린 부분은 야초책을 검토·정리 장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야초책은 현지 조사 내용을 적은 초안이다.

③ O
중초책은 면별로 작성된 야초책을 바탕으로 자호와 지번을 부여하고, 면적·결부·시주·시작·사표 등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를 확인하여 작성한 장부이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전답타량책은 전답 측량 결과를 적은 장부 내지 양안의 다른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처럼 야초책을 바탕으로 자호·지번을 부여하고 여러 항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2단계 편철 장부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틀린 부분은 전답타량책을 중초책과 같은 작성 단계의 장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해당 설명은 중초책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야초책·중초책·정서책을 모두 양안 관련 장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능으로 섞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자호와 지번 부여", "일치 여부 확인"이라는 중간 검토 기능을 읽어 내면 풀리는데, 최종본인 정서책과 초안인 야초책을 바꿔 고르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안 작성 단계를 먼저 나눈다. 현지에서 처음 적으면 야초, 초안을 대조·정리하며 자호·지번을 붙이면 중초, 이를 수합해 형식을 통일한 최종본이면 정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야초는 현장 초안, 중초는 번호 부여·대조 확인, 정서는 최종 정리본이다.

NoteBase

문 20. 도로명 주소의 부여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구간의 방위에 따라 동→서로, 남→북으로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설정한다.

② 기존 노선을 이용하여 '대로, 로, 길'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 기초번호는 도로 시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④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가지번호를 부여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중 도로구간의 시작·끝 방향, 대로·로·길 구분, 기초번호와 가지번호 부여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위치를 표시하는 기본 번호이다.
가지번호는 같은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을 때 뒤에 붙이는 보조 번호이다.

핵심 구분

도로구간의 방향 설정 원칙은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이다.
기초번호는 도로 시점부터 20미터 간격으로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로 부여한다.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건물등이 둘 이상이면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인다.

선지별 해설

1번: X.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원칙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정한다. 틀린 표현은 '동→서'이다. 올바르게는 '서→동, 남→북'이다.
2번: O. 도로는 대로·로·길로 구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기존 도로망·노선의 연속성도 유지하도록 구성한다. 대로·로·길 구분 자체는 도로의 폭과 차로수 등 도로 기준에 따른다.
3번: O. 기초번호는 도로 시점에서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하고, 진행방향 기준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한다.
4번: O.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주된 출입구 순서를 따져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방위 방향을 거꾸로 제시한 선지이다. 2번은 '기존 노선'이라는 표현 때문에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 함정은 2번이 아니라 1번의 방향 반전이다. 3번과 4번은 기초번호와 가지번호의 대표 규정이므로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로명주소 문제는 먼저 도로구간의 방향 원칙이 서→동, 남→북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초번호 20미터·왼홀오짝, 마지막으로 같은 기초번호 안의 복수 건물에는 가지번호를 붙인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로명주소는 서동남북이 아니라 서→동, 남→북이고, 번호는 20미터마다 왼홀오짝이다.

NoteBase